

부흥 보고서: 에스겔 왈렐라의 기적적인 치유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에 대한 증거)

간증 날짜: 2026년 2월 17일 (화)

진행: 렌슨 비숍 진행 Jesus Is Lord Radio 생방송 부흥 프로그램

간증인: 에스겔 왈렐라, 2009년 2월 17일 출생, 케냐 우아싱기슈 카운티 마툰다 출신



이 부흥 보고서는 2022년 8월 5일 나이로비 잠후리 광장에서 열린 전국 회개와 평화 기도회에서 주님의 신성한 개입을 통해 HIV/AIDS의 고통에서 벗어난 에스겔 왈렐라의 놀라운, 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주관한 이 행사는 에스겔의 삶에 전환점이 되어, 고통에 시달리던 "살아있는 시체"에서 하나님의 치유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간증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3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확증된 대로, 치료 불가능한 병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배경 및 초기 진단

에스겔 왈렐라는 2010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마툰다 준군 병원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던 중 HIV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유 환자 번호는 159830622였으며, 2010년 3월 30일 종합 치료 클리닉(CCC)에 등록되어 즉시 항레트로 바이러스(ARV)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과의 거리가 멀어 인근 마부시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HIV 감염이 거의 모든 가구에 만연한 캄브리사피 마을에서 태어난 에스겔에게 HIV는 유아기부터 큰 짐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몸은 심각한 쇠약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마치 마가복음 5장 25-26절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9살 무렵, 에스겔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은 너무 움푹 들어가 "물을 부어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복시를 겪으며 사람들이 겹쳐 쌓인 듯한 환영을 보았고, 글씨를 쓸 때 줄이 페이지 위로 뻗어 올라가는 바람에 학교에서 글씨를 쓰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검게 변해 마을에서 "검은 눈"이라는 잔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던 그는 형제자매들 중 자신만 복용하는 약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력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에 가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은 HIV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는 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 병에 걸렸을까?"라는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은조이아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꿈을 꾸었고, 그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이는 시편 42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수년 간의 고통과 낙인

에스겔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자주 기절하여 학기당 일 주일 밖에 학교에 가지 못했고, "간질 환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에게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바늘처럼 마른" 모습에 동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멍든 눈을 놀리며 개와 자냐고 물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머니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자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복용을 거르면서 더욱 야위었습니다. 바람에도 그의 연약한 몸은 흔들렸고, 그의 손은 항상 차갑고 땀에 젖어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삶을 상징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결과를 경고하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쉼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고통 속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죽기를 간절히 바라며, 15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17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녀의 거짓말을 추궁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 사회적으로 아이들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은 잠시 약 복용을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엄격한 훈육으로 그를 강제로

약을 먹게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에스겔은 약을 먹을 때마다 숨어야 했습니다. HIV가 만연한 마을에서, 에스겔은 자신과 비슷한 치료를 받던 또래들이 죽어 묻히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덤에 갇힌,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에베소서 2장 1절, "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표현이다

거짓 치료사와 교회에 의존했던 실패한 시도들

치료를 간절히 원했던 에스겔의 어머니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종종 마술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나중에 무당이라고 여긴 한 소위 "목사"는 붉은 닭, 검은 닭, 캥거루 닭, 땅콩, 참깨, 기장, 옥수수 가루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교회 깃발 앞에서 닭을 도살하고 의식으로 피를 뿌렸으며, 축복을 선포하면서 에스겔의 손에 음식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족은 사흘 동안 뼈를 먹지 말고(제물로 태워야 함), 목욕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당하고 오직 구약 성경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고하듯이, 이 거짓 사역은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닭 50마리 이상을 잡아먹어 그들의 형편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후에 온 무당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 무당은 에스겔의 등을 면도하고 약초를 바르며 아침 소변을 눈에 떨어뜨리라고 지시하여 몇 주 동안 완전히 시력을 잃게 했습니다. 또 다른 무당은 항레트로 바이러스제(ARV)의 효과를 없애는 약초를 주어 의식 상실(땀에 빠지는 등), 괴력 발작, 그리고 심각한 허약 증세를 유발했습니다. 세 번째 무당은 매일 그의 등을 면도하여 관절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이러한 행위들이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초래했으며, 흑마술이 HIV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이러한 만남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부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으로는 굶주린 이리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들은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릴 "천막" 집회에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코너스톤"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모금 활동이 이어졌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모호한 약속에 실망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겔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시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전환점: 잠후리 운동장에서의 만남

2022년,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밀리센트 은두비 부대감독과 회개와거룩함사역회 목사들이 주님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인도하는 전국 회개와 평화 기도회를 잠후리 운동장에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루도도에서 그들을 만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에스겔의 HIV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많은 불구자가 일어난 것을 제시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에스겔은 몸무게가 24kg밖에 되지 않아 몹시 야위었습니다. 부주교는 교통비, 식사비, 우유와 과일값을 지원하며,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에스겔 또래들의 죽음으로 인해 처음에는 반대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은 HIV가 완치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단지 눈이 낮기만을 바라며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회 전 CD4 수치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1번 게이트에서 건강 검진을 통과했고, HIV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들판에서 잠을 자며, 그는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첫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착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선포에 절름발이들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보이는 듯했던 에스겔은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 간증들 사이에서 그는 시야야 출신의 알프레드 오펜디가 메넵가이-4에서 HIV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의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갑자기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지금부터 HIV/AIDS를 저주한다"라고 선포하며 에스겔을 가리켰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에스겔은 깜짝 놀라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굵은 소리가 들리더니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두 개이거나 검게 보이지 않고, 붉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대로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참석자들은 확진을 위해 의사에게 다시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머니와 재회했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 확인 및 퇴원

집회 후, 에스겔은 교회에서 시력 회복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부대감독의 지시에 따라 마부시 보건소를 방문했고, 모이스브리지 소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료 상황을 설명하자 신속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워 세 번 더 검사를 반복했지만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이 교육병원 AMPATH에서 롱ELISA 검사를 받았지만 일주일 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란셋 연구소에서 실시한 최종 DNA-PCR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항레트로 바이러스제(ARV) 복용을 중단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 NASCOP, USAID, 마부시, 마툰다의 의사들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그의 집으로 찾아와 그의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에스겔은 단호하게 "저를 무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없이 재검사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그는 부대감독의 입회를 요구했습니다. 2023년, 그들은 마부시로 돌아와 다시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록을 삭제하고 그를 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음란한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2026년 1월 모이스브리지와 마툰다에서 실시된 최근 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과 영원한 감사

오늘 17세 생일을 맞이한 에스겔은 몸무게 51kg으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5세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지조차 의심했던 그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며, 교사 같은 회의론자들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는 메가 선지자를 존경할 것을 간청하며, 출애굽기 20장 7절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치유와 거룩함의 길에 감사하는 에스겔은 "메가 선지자께서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래전에 잊혔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록을 HIV 양성에서 HIV 음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간증은 모든 이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며, 무덤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